



주택경기 회복세 지속, 제조업 경기 위축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1월 20일 미 상무부는 10월 주택착공 실적이 전월대비 3.6% 증가한 연환산 89만 4,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
- 10월 주택착공 실적 증가율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며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.
- 주택착공의 선행지표인 주택건축 허가 건수는 10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2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단독주택의 허가 건수는 0.2% 증가한 연환산 59만 4,000채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은 연준의 추가양적완화정책 시행 등으로 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주택가격의 추가하락 위험이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임.
- 한편 주택건설업협회/웰스 파고가 발표하는 11월 건설업 신뢰지수 또한 6년 내 최고 수준인 46을 기록함.

■ 반면, 11월 15일 뉴욕연방은행이 발표한 11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경기확장 기준선인 0을 하회하는 -5.2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지속함.

- 11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10월 -6.2에서 1.0p 상승한 -5.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경기위축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권을 지속함.
- 신규주문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0선을 상회하고 운송지수 또한 14.6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재고지수가 -12.4로 크게 악화되고 고용자수 지표도 10월 -1.1에서 -14.6으로 큰 폭 하락함.

(Bloomberg 등, 11/20)